

교원 5,979명의 LGBT인식조사 보고서

- 2014년도 후생노동성 과학연구비보조금 에이즈 대책 정부연구사업
- 개별 시책 단체의 인터넷 모니터링 조사와 교원, 교사, 임상현장에서의 예방, 지원에 대한 연구

연구대표자 日高唐晴(히다카 야스하루) (타카오카 대학 간호학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사의 한 마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를 보고 있습니다.

LGBT 아이들은 자신이 조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존재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메시지를 매일 생활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LGBT 아이들은 스테레오타입에 따른 편견에 의해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개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LGBT 아이들은 이단시, 부정, 야유, 혐오의 존재로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LGBT라는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로서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교사들에게 기대가 큼니다.

도서관이나 보건실에 LGBT에 관한 책을 비치하거나 학교내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당사자 아이들에게 있어 귀중한 정보획득의 기회가 됩니다. 동아리 활동의 과제로서 LGBT의 인권과제를 내주는 것도 중요한 도움입니다. 학생 시설의 이른 단계에서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은, 당사자 아이들의 자존감 이랑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인권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LGBT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인지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면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교의 대처와 교사의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6개 지자체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대해 (조사기간 2011.11 ~ 2013.2)

국민의 5%가 LGBT라고 추정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엔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협력을 얻어, LGBT와 교사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HIV/AIDS나 성병, 괴롭힘이나 등교거부의 원인으로 LGBT와의 연관성이 지적되고 있다.

통계결과의 개요를 보고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설문조사 응답자 (유효응답수 5,979명)

성별 : 여성 48% / 남성 51% / 무응답 1%

연령 : 20대 18% / 30대 18% / 40대 24% / 50대 35% / 60대 3% / 무응답 2%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소속된 5,979명 (평균연령 43.4세)의 교사들에게 응답을 얻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한다.

1. LGBT에 대해 수업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Q.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동성애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62.0%
- 트랜스젠더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73.0%
- HIV/AIDS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94.3%
- 성병감염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93.6%

반수이상의 교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LGBT에 대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는 아직 소수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뛰는 교사들의 반수 이상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혹시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교사들의 마음에 교과서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르겠다.

2. LGBT 아이들을 접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극히 소수

Q. 실제로 아이들을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 성적 피해 관련 32.1%
- 임신 관련 34.2%
- HIV/AIDS관련 2.5%
- 성병감염 관련 17%
- 동성애 관련 7.5%
- 트랜스젠더 관련 11.9%

LGBT에 대해 아이들과 접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극히 드물었다. 그에 비해 임신이나 성적 피해 관련은 3할 이상, 성병감염은 2할에 가깝게 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동성간에 HIV감염이 확대되는 현재, HIV/AIDS나 성병감염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LGBT 아이들도 존재를 가시화당해서 괴로운 측면이 있는 반면, 그들이 곤란할 때에 주위 어른에게 상담하는 것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어째서 LGBT에 대해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것인지?

Q. LGBT에 대해 수업에서 다루본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 13.7%
- 없다 77.5%
- 무응답 8.8%

Q.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

- 가르칠 필요성을 느낄 기회가 없었다 42.3%
-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잘 모른다 26.1%
-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다 19.1%
- 가르치고 싶지만 가르치기 힘들다 19.1%
- 학습지도요령에 나와 있지 않다 15.2%

LGBT아이들의 자존감을 길러주자

수업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실제로 수업에서 다루 본 경험은 낮은 비율이었다. LGBT에 대해 교사가 먼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보지 않겠어요? 간단한 화제도 괜찮습니다. LGBT당사자 아이들의 불안이나 당혹감을 해소하기 위해 긍정적인 정보나 바른 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조금씩이라도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에 대해 화제로 삼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4.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Q. 동성애는 정신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게 생각한다 5.7%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66.2%
- 모르겠다 25.1%
- 무응답 3%

Q. 동성애자가 되거나 이성애자가 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게 생각한다 38.6%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5.4%
- 모르겠다 32.8%
- 무응답 3.2%

성적지향은 선택가능한 것?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약 7할의 교사가 성적지향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고 거부

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도 자유다]라는 생각은 잘 못된 것이다. 성적지향은 기호나 취향과는 다른 ‘지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우리들 [20명중 1명은 LGBT]라는 현실

Q. 지금까지 교사생활 중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고 생각되는 아동, 학생은 있었습니까?

- 동성애자라고 생각되는 남자애가 있었다 10.4%
- 동성애자라고 생각되는 여자애가 있었다 10.2%
- 트랜스젠더라고 생각되는 남자애가 있었다 10.4%
- 트랜스젠더라고 생각되는 여자애가 있었다 13.4%

20명 중 1명은 LGBT

2012년도 전통총연이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5.2%가 LGBT라고 응답했다. 즉 성소수자, 혹은 LGBT는 20명에 1명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남녀의 구별

세상에는 [남/여]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다. 물론 학교 안에서도 예외는 없다. 예를 들어 출석부 순서나 [~씨, ~군]등의 호칭, 교복, 부활동, 진로 등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들은 아주 많다. 이렇게 매일의 생활 중에 [당연하게] 생각되는 남녀의 구별이 매우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들도 존재한다.

6. LGBT에 대한 세간의 눈, 그리고 교사의 눈

Q.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생각한다 69.1%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9.1%
- 모르겠다 19.2%
- 무응답 2.6%

Q. 많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생각한다 59.3%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4.7%
- 모르겠다 23.4%
- 무응답 2.6%

세간은 LGBT에 대해 부정적?

세간 사람들이 LGBT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반수 이상이 [사람들은 LGBT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모르겠다]는 응답을 더하면 8할 이상의 응답자가 세상 사람들은 LGBT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티비에서는 오네 텔런트(여성스런 남자 연예인)가 활약하고 있지만 여론은 아직까지 가혹하고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7. 동성을 좋아하는 것(동성애)

Q. 솔직히 말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 그렇게 생각한다 25.5%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2.6%
- 모르겠다 29.2%
- 무응답 2.7%

아이들의 마음을 상상해 주세요. 연애상대가 [동성]이라는 것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성애가 자명한 사회에서 동성을 좋아하는 자신을 깨달은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자신을 이단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저 지식 재수없어]라고 친구나 교사에게 편견과 차별을 받는 LGBT아이들도 적지 않다. 성적지향은 타고난 개성임과 동시에 다양한 것이다. 게이, 바이섹슈얼 남성은 평균연령 13세에 [게이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각]하지만 이성애가 아닌 성적지향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8. 자신의 성별에 위화감을 가지는 것 (트랜스젠더)

Q. 솔직히 말해서 트랜스젠더를 이해하기 힘들다.

- 그렇게 생각한다 15.2%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5.1%
- 모르겠다 27%
- 무응답 2.7%

아이들의 마음을 상상해 주세요. 자신의 성별에 대한 위화감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 어느 쪽 하나로 구별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때마다 성별위화감을 가진 아이들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진짜 자신을 이야기 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다는 갈등에 더해 제 2차 성징의 시기에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몸이 변하는 것에 절망조차 느끼곤 하다. 성별위화감을 가진 여자(남자) 학생 중에는 전형적인 남성(여성)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에도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도 존재한다.

9. 아이들의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언행

Q. 동성애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학생이 있다 (가해자 측)

- 있다 22.8%
- 없다 56.0%
- 모르겠다 17.4%
- 무응답 3.8%

Q. 동성애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당하는 학생이 있다. (피해자 측)

- 있다 13.4%
- 없다 63.0%
- 모르겠다 19.8%
- 무응답 3.8%

차별적인 아이들의 언행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스미디어에서는 [기생오래비], [호모]같은 말로 동성애자를 야유하는 일이 자주 보이고, 웃음거리로 사용되어 아이들도 이러한 말들을 주입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섹슈얼리티에 관한 언어폭력 (조롱이나 차별적 발언을 포함)에 의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심각한 이지메나 등교거부, 자살미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차별적 언행을 당한 아이들의 경우에도 SOS를 보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사나 어른이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10.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실시상황은....

- 동성애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7.5%
- 트랜스젠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8.1%
- 자해행위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19.4%
- 등교거부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29.4%
- 괴롭힘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31.3%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원양성기관에서 [괴롭힘],[등교거부],[자해행위]에 대해 배운 비율은 2~3할, LGBT에 대해서는 1할도 되지 못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LGBT 아이들의 다수가 학창시절에 괴롭힘이나 등교거부, 자해행위에 직면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괴롭힘이나 등교거부, 자해행위의 배경원인으로서 혹시 섹슈얼리티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워 주기를 바란다.

11. 확실히 알면, 아이들과의 접근 방법이 변한다.

Q. 성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그렇다 60.6%
- 아니다 6.1%
- 어느 쪽도 아니다 30.9%
- 무응답 2.4%

Q. 학생시절에 성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면 이수하고 싶었겠습니까?

- 그렇다 57.1%

- 아니다 6.2%
- 어느 쪽도 아니다 34.1%
- 무응답 2.6%

올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실천

정보과다인 인터넷사회에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대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부적절한 정보도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LGBT에 대한 정보는 이상하게 각색되어서 전해지는 것들도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학교에서 LGBT의 존재를 깊이 이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